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Contains program schedules for channels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Table with 4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Contains program schedules for EBS channels from 06:00 to 24:05.

Table with 4 column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EBS플러스3, EBS플러스4. Contains program schedules for EBS Plus channels from 00:00 to 23:5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9일(음 7월 13일 丁巳)

运势 forecast section with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나쁜남자” 역할 하고 싶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서 탄탄한 연기력 입증한 **윤상현**

“이제 가능하면 ‘나쁜남자’ 역할을 한 번 맡아보고 싶어요.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재미있는 역할보다는 진지한 역할로요.”

올해 여름 가장 큰 인기를 끈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극에 탄탄한 안정감을 불어넣은 캐릭터는 분명 극선전담변호사 ‘차관우’였다.

극의 고비마다 다른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차관우 역을 맡아 묵직한 존재감을 뽐낸 배우 윤상현을 만났다.

“출연을 결정할 당시에는 착한 역할, 재미있는 역할로 이미지가 굳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약역을 해보려 했어요. 그런데 드라마 대부분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무조건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초능력자가 좋았지만 고등학생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웃음)”며 “차관우는 내 나이에와도 맞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역할이 백퍼센트 맘에 들지는 않았지만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강조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극선전담변호사 장혜성(이보영)과 차관우(윤상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박수하(이종석)가 만드는 법정 로맨스 판타지다.

지난 6월 초 전국 시청률 7.7%로 출발한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18.8%를 기록, 경쟁작들을 크게 앞서며 동 시간대 1위를 지켰다. 최고 시청률은 24.1%였다.

차관우는 처음에는 고지식하고 촌스러운 인물로 소개된다. 하지만 극의 전개와 함께 순수하고 따스한 내면의 진가가 발휘되면서 여주인공과 연인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특히 그의 변론 장면은 많은 화제를 낳았다. 사회적 약자의 변호를 주로 맡은 그는 청력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을 위해 법정에서 수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생계형 피고인을 위해 폐지를 법정에 등장시키기도 한다.

“차관우가 어려운 분들 변호하는 장면에서 시청자에게 많이 공감해주신 부분이 제일



윤상현

뿌듯해요. 감동받으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극선전담변호사가 어떤 직업인지, 어떤 변호사가 진짜 변호사인지는 차관우가 보여준 것 같아요.”

드라마는 대성공을 거두고 그의 연기도 호평받았지만 캐릭터가 중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팬들도 있었다. 바로 연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악당의 변호를 맡은 것. 이 선택으로 그는 사랑을 잃고 중심 ‘라브 라인’에서 이탈하게 된다. 아쉬움도 클 것 같다.

“내 역할로 다른 배우가 빛나면 희생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관우가 민준국(정우진)을 변호하면서 사건의 큰 전제가 이뤄졌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희생양이 됐지만 배우는 그런 부분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상현은 제작발표회에서 시청률이 8%를 넘으면 팬스를 보여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결과를 보면 적어도 세 번은 취야 할 것 같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방송에서 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해요. 방송 스케줄

이 지연돼서 아직 못 보여드렸네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려고요. 보시면 알 겁니다(웃음).”

최근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배우 이보영이 결혼을 발표했다. 적지 않은 나이인 그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빨리하고 싶습니다. 좋은 분 나타나면 만만치 두세 달 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혼이었던 내 마지막 친구가 7월에 장가를 갔어요. 내가 처음 축하를 불러줬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윤상현은 그동안 때로는 짓궂지만,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순수한 역할을 많이 맡았다. 거기에 짝사랑도 빠질 수 없다. ‘너목들’은 물론 앞선 ‘내조의 여왕’의 태준, ‘시크릿 가든’의 오스카도 그렇다. 반신을 원할 것도 같다.

“이제는 나쁜남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다시는 착한 역할은 안 하려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짝사랑한 역할이 많아요. 면발치에서 촉촉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기도. 이제 짝사랑 전문배우도 그만 해야죠.(웃음)”

연습실

전지현·김수현, SBS ‘별에서 온 남자’ 출연 확정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이 영화 ‘도둑들’에 이어 12월 방송 예정인 SBS 새 수목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연기 호흡을 맞춘다.

드라마 제작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16일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이 올해 겨울에 방송되는 SBS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남자’(가제)의 출연을 확정하고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배우가 출연할 작품은 서로 다른 행성의 남녀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내용의 로맨틱 코미디 장르 드라마다. 아직 최종적인 드라마 제목과 방송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영화 ‘도둑들’과 ‘베를린’에서 열연한 전지

현은 작품에서 톱 여배우 천송이 역할을 맡는다. 전지현의 이번 드라마 출연은 1999년 SBS ‘해피투게더’ 이후 14년 만이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로 올해 최고 스타로 떠오른 김수현은 400년 전에 다른 행성에서 조선에 온 뒤 현재까지 살아가는 신비로운 남자 도민준으로 분한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바람의 화원’을 연출한 장태유 PD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박지은 작가가 힘을 모은다.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캐릭터에 잘 어울리는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하는데 집중했다. 시청자에게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줄



전지현·김수현

거움을 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TV 하이라이트

경건한 영혼의식 ‘천장’



다큐프라임(EBS 밤 9시50분) = 방자의 육신을 독수리에게 내어주고 영혼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독특한 장례의식인 ‘천장’.

이같은 장례의식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네덜란드와 중국 티베트 지역 사람들의 생사관을 소개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그들에게 티베트 천장은 그들의 경건한 영혼의식이다.

간장계장 맛보다 쓰러진 이유는?



위기탈출 넘버원(KBS 2 오후 8시55분) = 위험한 밥상 ‘꽃게’편. 부모님 결혼기념일 날 요리를 준비하는 고우리씨. 동생 근호. 하은이가 꽃게 요리 간을 본다. 그런데, 간장계장의 맛을 보면 남동생 근호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다.

두 번째 위기 ‘도시 태풍’. 위기탈출 넘버원 애청자 최재원씨와 딸 최유민양. 이 부녀의 최대 관심사는 울여름 예고 된 슈퍼태풍. 태풍이 지나가고 아파트 전체가 쑥대밭이 됐을 때, 재원씨의 집은 ‘이 방법’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방법’이 무엇인지 넘버원 시청자들에게만 알려준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그들에게 티베트 천장은 그들의 경건한 영혼의식이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 오후 5시35분) = SBS와 SK에너지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및 미니도서관 프로젝트. 대전시 서구 내에 자리한 미래지기 지역아동센터. 자유롭게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된 이곳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이자 공부방 역할을 톡톡히 해 주고 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센터 아이들을 위해 SBS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SK에너지의 후원으로 7년간 수리 한번 하지 못해 낡고 열악한 센터를 개보수하기로 한 것. 칸막이가 없어 소그룹지도가 힘들었던 센터 내부 공간을 분리하고 노후된 시설들도 아이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 확 바꿨다. 또 아이들이 위한 작은 도서관도 생겼다.